



대전MBC, 글로벌(Glocal) 방송사로 발돋움 하다 2015 ABU 총회 참관기 1



2007년 사상 최악의 태안기름유출 사고를 다룬 특집 다큐멘터리 ‘끝나지 않은 재앙’(제작 최기웅 기자)은 당시 세계의 관심사였던 환경 관련 프로그램으로 ABU상에 출품하려 했지만, 대전MBC가 비회원사라는 이유로 출품조차 하지 못했다. 이후 8년이 지난 올해, 대전MBC는 비로소 ABU 콘테스트에 두 작품을 출품할 수 있었다. 지난 3월 취임한 이진숙 사장님의 “왜 안됩니까?!” 라는 강한 추진력 덕분에 지역 방송사 최초로 대전MBC가 ABU 회원사로 가입한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감각과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2015 ABU 총회(10/24-10/31)에 참석하도록 국장 전원에게 출장 명령이 내려졌다.

지구촌은 넓고, Media 세상은 가깝다

ABU(아시아 태평양 방송 연맹, Asia-Pacific Broadcasting Union)는 1964년 결성되어 67개 국 274개의 국영, 공영, 상업방송사와 방송 산업 관련자들로 구성된 세계에서 가장 큰 방송 연맹이다. 전 세계의 60%에 달하는 인구에게 네트워크를 통해 방송을 송출하며, 수많은 세미나와 워크숍을 통해 점차 세분화 되어가는 시청자와 청취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고품질의, 그리고 혁신적이고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회원사들을 적극 돕고 있다.

올해 ABU 총회의 주제는 “Serving Audiences : Empowering the Asia-Pacific(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시청자를 위한 서비스 강화 방안)”이었다. 시청자들의 신뢰를 회복함과 동시에 노약자와 장애인, 여성 등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동등한 기회와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재해로부터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미디어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또한 급변하는 방송환경과 세계경제에 시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에 힘을 합쳐자는 의견도 모았다.



▲ABU 총회에 참석한 대전MBC 이진숙 사장님과 간부들

포럼-방송의 공익적 역할을 함께 고민하다

우선 필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포럼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하는 여성”이었다. 이번 포럼에 연사로 참석한 네덜란드 출신의 투란 알리는 방송 콘텐츠에서 여성의 차별을 철폐하고 위상을 찾기 위해서는 모든 미디어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강력한 스토리를 영상으로 전달하여 흡인력 있게 설득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창의적인 스토리텔링과 영상 매체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인도네시아 RRI 라디오 방송사 대표 니켈 위디아스투티의 발표에도 깊은 공감을 했다. 대중들에게 신뢰를 얻고, 매체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익적 행사를 통해 청취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전MBC의 장애인과 함께 하는 ‘라디엔터링’과 유사한 행사의 예를 들며 청취자들을 직접 참여하게 함으로써 특히 라디오 매체의 청취율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재난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 방송 시 ‘재난 빅데이터’를 활



▲ABU 총회 중 품질경영 워크숍



▲ABU 총회 포럼장에서 필자

용했던 일본 NHK의 주제발표는 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다함께 공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ABU 총회 또 하나의 매력, 방송인들의 네트워크의 장

모두 250개 작품이 출품된 ABU 시상식에서는 최종 65편의 후보작이 본선에 올랐다. 그 치열한 경쟁 속에 MBC의 ‘마일리 텔레비전’은 ABU TV 예능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기존 TV 시청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방송에 직접 참여하는 쌍방향 소통과 흥미로운 콘텐츠가 진가를 인정 받은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후보작들 가운데 지방 군소 방송사들의 작품들도 눈에 띄게 많았다는 점이다. 우리도 포

특히 기억에 남는 사람은 지난 해 Perspective Award를 받은 뉴질랜드의 타냐 블랙이었다. 타냐는 대전의 인물을 다 큐로 제작해서 해외에 판매한 적이 있다며, 대전MBC에서 온 우리를 친구처럼 반갑게 맞았다. 사연인 즉, 네 번의 유산을 경험한 뒤 9명의 아이들을 입양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사는 김상훈 목사 부부의 이야기를 휴먼 다큐로 만들어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김 목사 내외의 이야기는 필자도 10년 전 제작PD를 할 당시, 프로그램에서 소개한 적이 있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지구촌은 넓지만 미디어는 우리들을 이렇게 가깝게 이어주고 있다.



▲인도네시아 제작진과 뉴질랜드 타냐(가운데 휠체어에 앉은)와 함께

맷이나 콘텐츠에 있어서 신선함과 메시지의 호소력이 있다면, 언제나 ABU 274개 회원사와 당당하게 겨뤄볼 수 있는 희망을 보았다.

세계 67개국에서 모인 방송인들과 교류의 기회를 가진 것은 또 하나의 기회였다. 내년엔 인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방송 정상회의의 의장이자 현재 인도네시아 RRI 방송사의 대표 본부장인 니켈 위디아스투티와 대전MBC 갈릭루트(Garlic Route) 프로그램 제안에 관심을 보인 네팔의 국영 방송 본부장 디팍 마니드히탈은 MOU를 통해 서로의 프로그램을 교류하자고 제안해, 지역사의 방송 권역을 세계로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것이다.

자카르타를 향한 거위의 꿈

필자는 이번 ABU 총회의 다섯간의 일정을 마친 뒤 깊은 사명감을 안고 돌아오게 되었다. 향후에도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전MBC 구성원들이 글로벌한 경험을 통해 ‘안목지수’와 ‘NQ지수(공존지수)’를 높이고, 이를 토대로 대전MBC의 프로그램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방송사업 및 프로그램의 권역 또한 확장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500여 명의 방송인들이 모여서 정보와 재능을 나누고,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폭넓은 교류의 장이 되었던 2015년 ABU 총회! 서양과 동양이 공존하는 이스탄불이라는 도시에서 모든 장애와 불가능은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방송과 콘텐츠로 하나가 되는 기회를 경험했다. 대전MBC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내년 ABU 총회에서는 수상의 기쁨도 누리고, 한류에 관심 많은 세계 방송인들을 위해 포럼에도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갖기를 고대해 본다.

이스탄불에서의 2015 ABU 총회 참관기를 마무리하며 터키 민족의 자긍심인 초대 대통령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가 남긴 한마디를 떠올려 본다. “좋은 스승이란 촛불과도 같다. 자기 스스로를 소비해서 남들을 위해 불을 밝힌다.” 이번 ABU 총회를 계기로 방송인으로서 우리의 열정을 되살려 시청자들의 마음에 환한 불을 밝히려는 다짐을 해 본다. **㉠**

김미리 국경 | 경영기술국

CEO칼럼

IS를 보면서



대전MBC 사장 이진숙

지난 10월 31일 이집트 흥해 연안 휴양지 샤름 알셰이흐에서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한 사건으로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륙 23분 만에 추락한 여객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224명이 탑승했는데,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조사 결과에 따르면, IS가 기내에 반입한 폭발물 때문에 공중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이 이슬람국가라는 테러 조직은 무엇 때문에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러시아는 지난 9월부터 시리아내 반군 근거지에 대한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지요. 이에 대해 미국 쪽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봉고되어야 할 독재정권을 러시아

정부가 지원해주었다는 건데요. 러시아 쪽에서는 아사드 정부가 독재 정권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슬람국가 같은 테러 조직이 먼저 소탕되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서방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사드 정권을 지원함으로써 시리아에서 미국과 맞대결을 벌이고 양보를 얻어내려 하는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미국이 유가 하락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러시아 수출의 60 퍼센트를 차지하는 원유 수출에 타격을 주어 러시아 경제를 망가뜨린다는 것이 미국의 계획이란 설명이지요. 이런 미국에 대해 러시아가 시리아 지원 '맞불작전'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어느 분석이 사실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러시아의 IS 공습이 그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은 사실인 모양입니다. 자신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복으로 224명이 탄 러시아 여객기를 폭파시켰다는 것이 IS의 주장이니까요. 이슬람국가,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들의 존재가 '이라크 해방'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2003년 3월 20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국민들을 해방시키고 세계를 수호하기 위해"이라크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신 무기로 무장한 미군과 동맹군의 군사작전은 단 3주일 만에 바그다드의 중심부를 함락시켰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거대한 동상이 무너지고 동상이 서있던 '파라다이스 광장'은 자유를 부르짖는 시민들의 합성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주주의의 확산'이 마침내 이라크에서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축제는 오래가지 않았습다. 정부가 새로 들어섰지만 보복의 정치가 계속되었습니다. 사담 후세인의 수니 정부에서 권력을 잡았던 엘리트 그룹은 물론 군인과 경찰, 집권당이었던 바트당원 등이 모두 축출되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시아 그룹의 시대가 열리면서 수니파들에 대한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권에서 배제되고 시아 치하에서 2류 시민으로 전락하게 된 수니파들은 스스로 코너로 몰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생존을 위한 명분을 '이슬람'으로 포장한 과격 세력들이 속속 출현하게 되었고 수니 그룹들의 동조를 얻게 됩니다.

이라크에는 '타우히드 알지하드(유일신과 성전)'이란 조직이 결성되고 이 조직은 2004년 한국인 김선일을 납치해서 참수 살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한국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해서는 안 된다는 그들의 강력한 경고가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유일신과 성전'이란 조직의 자르카위라는 지도자가 사망하면서 अब 바크르 알바그다디라는 인물이 새로운 지도자로 조직을 맡게 되었는데 그가 조직의 이름을 '이라크내 이슬람국가'라고 바꾸게 되지요. IS의 탄생입니다. 코란에 의거한 '이슬람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IS는 전 세계 국경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신을 믿는 자들로 구성된 나라인 '움마' 건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가정이란 것은 없지만, 만약 미국이 2003년 이라크를 공격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세인의 강권독재 아래 자르카위나 अब 바크르 알바그다디 같은 인물은 생산되지 않았을까요? 대량살상무기와 독재자를 제거하기 위한 전쟁, 수니파와 시아파 간에 보복의 순환, 이슬람국가, 항공기 테러... 평화가 지속되기에 세계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일까요? 911 사태 이후 최대 테러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 러시아 항공기 사건을 보면서 여전히 전쟁에 신음하고 있는 중동에 대해 생각해볼게 됩니다. ☹

열정 대전MBCian 스토리 <열정으로 뛰는 대전MBC 사원들의 현장 이야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TV를 지나 UHDTV를 향해서

디지털 전환의 마무리를 함께 하다

대전MBC는 1964년 9월 26일 AM 라디오 방송 송출 이후 1971년 4월 24일 TV방송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41년 후인 2012년 10월 31일, 아날로그 방식의 TV(흑백, 컬러TV)의 허가 폐지 신고를 제출했다. 아날로그 시대를 마감하고 디지털TV(HDTV)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또한 DTV 입시대역으로 사용하였던 700MHz대역(ch52~69)에서 DTV채널로의 전환까지 마무리했다.

디지털 방송의 시작은 필자가 입사하기 전에 이루어져 함께 하지 못했지만, 디지털 전환을 마무리하는 역사적인 순간은 함께 할 수 있었다. 마치 용의 마지막 눈동자를 직접 그리는 듯한 순간이었다.

기술행정이란?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있었다고 자랑하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기술행정이라는 업무는 제작현장의 엔지니어와 같이 현장감 있고 흥미진진한 업무는 아니다. 기술이라는 공학적인 단어와 행정이라는 사무적인 단어가 어우러져 있는 것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전자, 전파공학 분야의 지식과 다소 딱딱한 문서 처리가 요구되는 업무이다.

기술행정 업무 중 주요 업무는 전파행정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자'라고 정의된다.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법, 즉 전파법을 준수해야 한다. 전파행정은 전파법의 각 조항들에 맞게 허가, 검사, 재허가, 변경허가 등의 문서를 작성하고 처리한다. 전파행정 업무를 위해서는 약간의 기억력(전파법 및 시행령, 허가 및 만료 일자, 방송 채널 등 기억)과 카테고리 별 폴더 정리, 문서 규격에 맞는 작성 능력만 갖추면 된다. 다소 딱딱한 업무일 수도 있지만, 이보다 명확하게 떨어지는 업무도 없다. 기술행정은 이밖에도 방송장비

검토 및 구입과 대내외 문서 처리, 기술 기획 등이 있다. 여러 대내외 문서 처리 및 협조와 규정, 법령 등 문서 작업이 대다수이지만, 방송 기술 전반적인 이해 없이는 쉽게 할 수 없는 업무이기도 하고, 방송 기술의 흐름에 함께한다고 생각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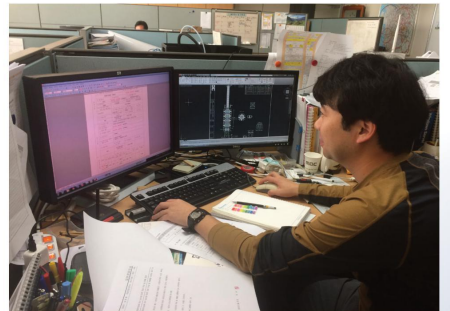
지금은 멀티(multi) 시대

필자는 기술행정 업무와 더불어 방송 시스템 관리 업무를 겸하고 있다. 방송의 심장인 TV·DMB 주조정실과 편집실, 그리고 카메라 등을 관리하는 일이다. 방송 송출이 과거와는 달리 자동화로 바뀌면서 시스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다 보니 장비나 시스템 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졌다. 철저한 시스템 관리와 더불어 적절한 시점의 장비 교체는 송출의 안정화와 직결되어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이지만 편성국이나 보도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시스템 관리가 필수적이다. 지난 2014년 통합전송망을 이전하면서 TV주조정실 도면을 그리고 케이블링과 셋팅들을 해나갈 때의 기쁨과 성취감은 마치 학부 시절 전자 도면을 그리고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각종 칩들을 납땜하며 결과물을 완성시켰을 때의 성취감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짜릿한 느낌이었다.

이밖에도 송·중계소 관리자가 휴가나 출장으로 자리를 비울 때는 대신 근무를 서기도 한다. 지역 방송사의 경영 여건이 전에 비해 좋지 않아 '일당백'의 자세로 여러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어려움이 적지 않지만 각 분야별로 서로 도와가며 업무를 공유해나가고 있다.

DTV를 넘어 UHDTV시대

지상파 방송사의 플랫폼인 '지상파(전파)'는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다. 지상파라는 전통적인 방송 플랫폼이 무료라는 장점이 있지만, 시청자가 지상파 플랫폼을 떠나 다른 플랫



폼(케이블TV, IPTV, OTT 등)으로 갈아타고, 그 수가 많아지면 지상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는 대전MBC와 같은 지역 지상파 방송사에게 더 강한 위협으로 다가온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교과서적인 해법이긴 하지만 우선 직접수신율(케이블이나 IPTV 등 유료방송이 아닌, 안테나만 달아서 지상파 방송을 보는 가구의 비율)을 올리고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다. 그 대안 중 하나가 지상파 UHDTV라고 생각한다. IPTV에서 일부 UHD제작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해외제작물에 의존하고 있다. 지상파 UHDTV 도입 시기와 전송 방식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이 지면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지상파 UHDTV서비스가 본격화되면 TV 서비스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다. UHDTV라는 그림이 이제 막 스케치를 시작했지만, 이 그림이 완성될 즈음에는 시청자들의 1/3 이상이 안테나를 통해 시청하는 것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

고석재 | 경영기술국 방송기술부



건강지킴이 닥터

치과 양악수술은 안면윤곽수술과 어떻게 다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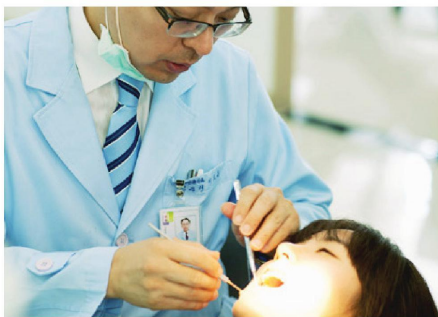
양악수술은 두 개의 턱을 수술한다는 의미로 위턱과 아래턱 즉, 상악골과 하악골을 절단 후 이동시켜서 환자에게 최고의 심미적인 얼굴모습을 제공하는 수술입니다.

반면에 안면윤곽수술은 양악수술과는 다르게 상악골과 하악골을 이동시키지 않고 얼굴 뼈 모양만을 다듬거나 변형시키므로 비교적 간단하게 얼굴형을 바꾸는 시술을 말합니다.

양악수술 시 협진 시스템 필요(성형외과-구강악안면외과-교정과)

양악수술은 기능적인 교합과 더불어 심미적인 얼굴모습으로 개선시키는 종합 성형수술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를 종합 평가할 수 있는 구강외과, 교정과, 성형외과의 협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임상검사와 턱 성장 평가를 위한 측두 방사선 사진, 연구모형의 분석, 전후방 골격사진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이때 협진을 통해 환자에게 양악수술이 반드시 필요한지 아니면 교정치료만으로 환자의 기능적, 심미적인 상태가 개선될 수 있는지 진단하게 됩니다.



타 성형수술이 부가적으로 필요하지, 필요하다면 양악수술 중 어떤 수술 방법이 환자에게 시술되어야 하는지, 교정치료를 이동시킬 치아의 이동량과 각도는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등 전반적인 환자의 상태를 객관적인 컴퓨터 데이터로 평가합니다.

양악수술만으로 예뻐질 수 있다는 기대감 버려야

양악수술은 기능적, 심미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게 제한되어 시술되어야 하는 수술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입장에서 단지 예뻐지기 위한 수단으로 양악수술을 선택하거나, 의료진의 입장에서 양악수술이 환자의 미적 기대심리의 욕구 충족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료만으로도 환자의 상태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양악수술이 꼭 필요할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양악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양악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갖춘 병원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교정과 의사와 구강악안면외과 의사가 있어야 하고, 수술 시행 전후 환자상태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마취과 의사가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양악수술은 단순히 예뻐지기 위한 수술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시행해야 하는 수술이고, 안전하고 적합한 수술이 이루어졌을 때 환자의 기능적, 심미적 상태가 개선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말 이도훈 치의학 박사 이엘 치과병원 원장

리포터 김용삼 대전MBC의료포털 닥터(www.drmbc.com)

방송가 사람들

무조건 부릅니다 - 가수 박상철의 조건 없는 노래 인생 -



가수 박상철

1993년 KBS 전국노래자랑에 출연해 최우수상을 수상, 가수 배일호를 통해 가요계에 발을 들였다.

사람과의 관계나 약속에서 조건을 다는 순간 순수성은 희석된다. 그래서 '무조건'이라는 말은 최상의 수식어이자 최고의 배려이고 속 깊은 의리를 상징한다. 가수 박상철은 그의 노래 무조건처럼 조건 없이 팬들에게 다가선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줘 언제든 달려갈게" -대전MBC와의 소중한 인연

가을은 트로트 가수들에게 연중 최고 대목이다. 팬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힘을 얻는 직업인이라 전국 방방곡곡 부르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는 가수 박상철. 덕분에 벌써 일주일째 집에도 가지 못하고 전국 곳곳을 다니며 팬들을 만나고 있다.

리고 웃기며 지나온 인생역정을 풀어냈다. 녹화가 끝난 후, 대전MBC와의 인연을 물어보니 이해가 갈만했다.

"MBC (가요베스트)라는 프로그램으로 대전MBC와 인연을 맺었어요. 10년이 넘었죠. 지금은 포맷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성인이요 중에 유일하게 순위를 매기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제가 1위를 여러 번 했죠.(웃음) 특히 대전MBC 김종찬 국장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무병시절부터 저를 좋게 보고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지금은 섭외 1순위의 트로트 가수지만 그때의 의리를 생각해 대전MBC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온다는 박상철. 그는 신의와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의리남'이다.



▲<하침의 토크&조이>에 출연한 박상철

희망을 전하고 싶은 싱어송라이터

박상철은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직접 곡을 만들고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 싱어송라이터다. 지금까지 작사 작곡한 곡만 해도 300여곡. 그가 만든 노래에는 제각각의 사연

이 담겨있다. "달컹달컹 달려간다 시골 버스야 / 흰차가 달려간다 / 뽕뽕뽕뽕 기적을 울리며 / 신나게 달려간다" 그가 직접 노랫말을 쓴 <뽕뽕>의 한 구절이다. 그런데 왜 마을버스가 내는 소리를 경적이 아닌 기적이라고 표현했을까?

"가난한 시골사람들이지만 모두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고 싶었어요. 모두가 기적 같은 희망을 꿈꾸고 사는데 노래를 통해서라도 그 기적이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그 역시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노랫말 하나에도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가난과 실패를 딛고

그가 나고 자란 곳은 강원도 두메산골. 방과방 사이에 구멍을 뚫어 호롱불 하나로 양쪽 방을 밝힐 정도로 가난한 시절을 겪었다. 라디오는 물론 TV는 당연히 없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가수는 그의 변치 않는 꿈이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학력고사 끝나기 무섭게 짐을 싸들고 서울로 상경했다.

"서울에 가서 누군가의 눈에 들면 무조건 가수되는 줄 알았어요. 작곡가를 찾아갔는데, 사투리에 얼굴은 새까맣지, 거들떠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음반을 내준다는 기획사 광고를 보고 찾아갔는데 결국 돈만 날렸죠. 그때 상처도 많이 받았고 사회에 대한 실망도 컸어요."

돈도 날리고 꿈도 희망도 잃어버린 그는 노



▲1993년 KBS 전국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 수상

숙자 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 시절 같이 생활하던 노숙자들에게 오히려 위안과 인생의 교훈을 얻은 그는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가수의 꿈을 향해 좀 더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1993년, 운명의 그날이 왔다. KBS <전국노래자랑> 삼척 편에 출연해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가수라는 꿈에 한발 다가간 것이다. 이후 방송국 문턱이 닳을 정도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고, 우여곡절 끝에 <자옥아>가 히트를 하면서 점점 이름을 알려나갔다.

세월은 흘러 어느새 그에게는 '트로트계의 황태자'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 가수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온갖 역경을 이겨낸 박상철. 무조건 노래를 불러야 사는 사람, 팬들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가는 사람. 그에게 노래는 어쩌면 숙명인지도 모른다.

M사모의 한마디

대전의 문화융성을 위한 대전MBC의 역할



이지호
이응노미술관장

을 겸비한 문화행사들로 대전시민의 문화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혹자는 대전이 서울 다음으로 문화예술의 수준이 높다는 평을 한다.

대전의 문화수준이 높아진 요인은 이러한 관주도의 시설들이 새롭게 개관을 하고 그곳에서 대규모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등 인프라 구축으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현상 덕이다. 그러나 관주도의 문화융성은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의 순기능은 반드시 민간기관과의 사이의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증설도 중요하지만, 민간이 주도하는 문화예술의 인프라가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건과 풍토가 중요하다.

이러한 여건과 풍토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것이 언론의

문화융성 시대에 대전의 위상은 대전시의 문화정책과 대전 예술계의 손에 달려있다. 지난 1998년 대전시립미술관이 개관한 이후, 대전에 예술의전당과 이응노미술관이 이어서 문을 열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전예술가의집과 대전연정국악원 등이 새 단장을 하고 대중성과 전문성을

역할이라 할 수 있다. 대전MBC는 창립 이래 지난 50여 년간 국내외의 수준높은 공연과 전시 등을 개최해 대전예술의 지평을 넓혔고, 대전의 문화유산을 지키고 그 가치를 알리는 일에 앞장섰다. 또한 현대미술의 거장 이응노 화백의 과리와 대전을 연결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이응노미술관의 개관을 후원하는 등 대전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9년 전 2006년 대전시립미술관과 대전MBC가 공동 주최한 '영혼의 자유를 지킨 작가, 루오'전은 대규모 전시의 경우 서울에서 먼저 하고 지역으로 내려오던 관례를 뒤집고 대전에서 단독으로 개최하여 성공한 사례이다. 미술관에 줄을 이어 입장하는 관람객의 행렬도 진풍경이었지만, 타 지역사람들이 이 전시를 보기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것도 유례없는 일이었다. 콘텐츠만 좋다면 지역에서 열리는 문화예술행사로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학습하게 된 것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콘텐츠도 성공을 위해서는 전략적인 홍보가 필수적이라는 사실도 동시에 확인했다. '루오'전의 성공은 MBC 방송을 통한 전국적 홍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일부 미술인들은 종교화가인 루오를 알 수 있었으나 루오라는 작가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 대전MBC가 루오라는 콘텐츠에 옷을 입히고 화장을 시켰다. 이것이 방송 미디어의 역할이자 기능인 동시에 새로운 문화에 대한 도전의식이 있었기에 가능

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지금 대전MBC의 문화행사는 발전을 거듭하면서 대전문화예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1985년부터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새기고 참신한 신예작가를 발굴하는 금강미술대전은 공모전이라는 형식은 진부하지만 탁월한 예술적 잠재력을 가진 젊은 예술가들의 발표장으로 자리 잡아 역사를 이어가는 책임과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충실하고 있다. 또한 대전MBC 사옥 1층에 문을 연 M갤러리는 예술인과 미술애호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의 예술가들이 선호하는 공간 중의 하나다. 공공성을 강조하는 대전시립미술관이 할 수 없는 지역 미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예술가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생적 예술의 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는 삶의 양식이며 방송은 한 도시의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하게 하는 매개체이다. 문화예술이 제대로 발전하려면 그것을 전달하는 매개체인 방송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전이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대전시의 문화정책과 문화예술인의 약진도 있었지만, 깨어있는 방송 대전MBC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대전MBC가 이러한 역할에 충실해주길 기대한다. **M**

조근호 변호사의 “행복 경영 - 공간이 조직을 바꾼다”

지난 6일 조찬특강 열려



▲조근호 행복마루 대표변호사

지난 6일 오전 8시 대전MBC 4층 대회의실에서 ‘행복 경영 - 공간이 조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조찬특강이 개최되었다. 이번 조찬특강에서는 행복마루의 조근호 대표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서 직원들에게 공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었다.

조 대표는 서울법대와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1983년부터 검사 생활을 시작해 30년 가까이 공직에서 보냈다.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법무연수원 원장 등을 거치고 2011년 법복을 벗었다. 이후 법무법인 행복마루를 개업, 변호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그는 공직생활 동안 공간의 변화를 통해 직원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부산고검장 시절에는 개인 공간이 없는 직원들을 위한 소통의 장소로 검찰청사 내부에 커피숍을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행복마루’라는 이름으로 호텔식 커피숍을 열었고, 반응은 뜨거웠다. 커피숍에서 티타임을 가지며 대화하는 직원이 점점 늘어났다. 음악회 행사도 열렸다. 작은 커피숍 하나가 소통 문화를 바꾼 것이다.

법무연수원장 시절에는 연수원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무겁고 딱딱한 이미지의 법무연수원 강의실, 복도, 휴게실에 빨강, 노랑, 파랑 옷을 입히자 훨씬 밝고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법무연수원장 시절 5주간 신입 검사 교육이 있었는데, 수료식 날 검사들은 ‘나는 초임 검사야’라는 제목으로 통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매년 신입 검사 교육과정을 운영했지만 이런 다채로운 음악회 수료식은 처음이었다고 한다. 유채색 공간이 이들을 변화시킨 것이다.

〈행복의 건축〉의 저자 알랭 드 보통은 “건물은 말을 한다”고 말했다. “건물은 기억과 이상의 저장소가 되어 온갖 일상의 방해물에서 벗어난 이상적 삶을 보여준다. 아름다운

운 건물은 우리 열망에 구체적 형태를 부여한다. 인간의 약함을 채워준다. 다시 말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퇴임 후 변호사 생활 중에도 조 대표는 화제를 몰고 다녔다. 법무법인 행복마루의 사무실 인테리어가 그 중심에 있었다. 검사 시절부터 늘 호기심 많고 재미있는 일에 도전을 일삼던 그가 법무법인 사무실에도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일반적인 법무법인 이미지와는 차별화된 실내 인테리어로 로펌 특유의 무겁고 딱딱한 분위기 대신 마치 카페에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편안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꾸몄다.

직원들의 창의력 증진을 위해 천장은 높이되,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공간은 바닥의 높이를 높여 상대적으로 콤팩트한 회의실을 완성했고, 사무실 곳곳에 놓인 레드 컬러의 의자는 직원들의 휴식을 책임지고 창의적인 발상을 돕게 했다.



▲법무법인 행복마루의 사무실

‘물건’과 ‘공간’은 사람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고 끊임없이 사람의 뇌리에 각인된다. 그러한 메시지가 축적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를 흡수하고, 바뀌고, 결과적으로는 조직도 바뀔 수 있다. 특강을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는 물건과 공간이 보내는 메시지에 너무 무덤덤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간은 예상외의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져다준다. 윈스턴 처칠의 말을 끝으로 특강이 마무리 되었다. “사람은 건물을 만들고 건물은 사람을 만든다.” **M**

대전MBC 프로그램 부분개편 (11월 9일자)

■ 대전MBC 시사플러스 (요일 변동)

- ▶ 금요일 밤 11:15~12:00(45분)
- ▶ 목요일 밤 11:10~11:55(45분)

■ 어영차 바다야 (요일 변동)

- ▶ 목요일 오후 6:10~7:05(55분)
- ▶ 화요일 오후 6:10~7:05(55분)

■ 맛있는 처방전 (10분 축소)

- ▶ 월~목요일 오후 7:05~7:15(10분×4일=40분)
- ▶ 월~수요일 오후 7:05~7:15(10분×3일=30분)

■ 테마기행 길 (10분 확대)

- ▶ 화요일 오후 6:10~7:05(55분)
- ▶ 목요일 오후 6:10~7:15(65분)

■ 어부의 만찬 (5분 축소)

- ▶ 금요일 밤 12:00~12:40(40분)
- ▶ 목요일 밤 11:55~12:30(35분)

대전MBC 주간 시청률 순위

11월 2일(월) ~ 11월 8일(일)

뉴스 제11월 첫째주

1위 	2위 	3위
MBC 가요베스트	허참의 토크&조이	전국이 보인다

뉴스 시청률 11월 첫째주

1위 	2위 	3위
11월8일 MBC 뉴스데스크 대전·세종·충남	11월5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세종·충남	11월4일 MBC 뉴스데스크 대전·세종·충남